

“우리나라 의과학계의 자랑스러운 자산”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제12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부부와 아산재단 이사, 의학상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은지·김종성·김빛내리·한범 교수 부부, 뒷줄 왼쪽부터 박승정 심사위원장, 김명자 이사,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부부, 정몽준 이사장, 이흥구·김태현·이승규 이사,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제정한 제12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김빛내리(49)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임상의학부문에 김종성(63) 울산대 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젊은의학자부문은 한범(40) 서울대 의대 의과학과 교수와 이은지(39)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가 수상했다. 아산재단은 기초·임상의학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5천만 원 등 수상자 4명에게 총

상금 7억 원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3월 21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정진상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철진 연세의료원 원장·김인규 경기대 총장·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김인호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아산의학상 운영위원장) · 이상도 서울아산병원 원장 · 김중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 · 채희동 울산대 의대 학장 등 학계와 의료계 · 의학 관련기관 인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 손숙 예술의전당 이사장 · 윤석화 연극배우 등 정계와 문화계 인사, 이흥구 · 이춘립 · 장정자 · 이상주 아산재단 이사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고재영 · 박승정(아산의학상 심사위원장) 울산대 의대 교수,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자문교수, 고규영 · 김은준 KAIST 교수 등이 함께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의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으며, 2008년 제1회 수상자로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선정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29명에게 아산의학상을 수여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기초와 임상의학부문에 매년 한 명씩 번갈아가며 시상했고, 6회부터는 국내최고 권위의 의학상에 걸맞도록 기초와 임상에서 각각 한 명씩, 또 젊은의학자부문에서 두 명씩 모두 4명으로 수상자를 늘렸다. 2016년 제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부터는 수상자 범위를 해외 의과학자로 확대해 로베르토 로메로(Roberto Romero) 미국국립보건원 교수가 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의학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과 수상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수상자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네 명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오늘은 선친의 18주기인 날이다. 아산재단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40여 년 전인 1977년에 아버님께서서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하시면서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다. 재단 설립 이듬해인 1978년부터 정읍과 보성, 보령, 홍천 같은 무의촌에 종합병원을 세우셨다. 병이 들어도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져서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막고자 하셨다. 지역 병원을 다 지으신 다음에는 연구개발과 모 병원 역할을 하는 서울아산병원을 설립하셨다. 아산재단은 설립자이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고 의과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에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면서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과 아산의학상의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서 정몽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RNA(Ribonucleic Acid) 연구자로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말할 때마다 가장 근접한 의과학자로 언급되는 김빛내리 교수와, 고등학교 때는 정신과 의사를 꿈꾸다가 의대에 입학한 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과를 지망한 김종성 교수, 부인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 중인 한범 교수, 시력 교정수술 후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게 된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전공을 안과로 결정한 이은지 교수를 소개했다. 아울러 수상자들을 배우자와 함께 인사시키면서 축하 박수를 이끌었다.

정몽준 이사장은 “수상자 네 분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자세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사표(師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다.

“길을 만드는 마음으로 연구하겠다”

제12회 아산의학상은 지난해 7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연구의 일관성과 독창성, 해당 연구의 국내외 영향력, 의학발전 기여도, 후진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김빛내리 교수(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장, 12~15p 참조)는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축사는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이 맡았다. 시상식에는 의학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수상자들의 연구와 업적을 요약한 영상물을 제작·상영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왼쪽부터).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고, 최근에는 RNA의 분해를 제어하여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RNA 혼잡꼬리’를 발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RNA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아산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고, 가난과 병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고결한 뜻을 담은 귀한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어록에서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말씀을 보았다. 길을 만드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힘차고 행복하게 나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종성 교수(16~19p 참조)는 한국인 뇌졸중의 특성 및 치료법 규명에 헌신해왔다. 뇌졸중 환자에 대한 뇌혈관 질환의 특성 및 뇌졸중 후 발생하는 감정조절 장애를 체계화시키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서양인과 동양인의 뇌졸중이 왜 다른지 궁금했다. 그 연구를 하느라 수십 년 동안 논문과 책을 쓰고, 강의도 많이 해서 이 상을 준 것 같다. 연구라는 것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사막을 걷다가 탈수가 나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항상 그즈음에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고 고통이 더 길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한범 교수는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찾고, 이를 활용해 질병의 세부 특성을 구분하는 의학통계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이은지 교수는 시신경과

시신경 주변의 혈관 구조에 대한 영상 연구를 통해 녹내장의 발병 원인을 재규명하고, 새로운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3p 참조).

한범 교수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질병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해서 아산재단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이은지 교수는 “이번 수상은 큰 영광이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와 경험을 주신 아산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공헌

축사는 장성구(67) 대한의학회 회장이 맡았다. 경희대병원장과 대한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장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산의 학상은 정주영 설립자의 아산재단 창립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계신 정몽준 이사장께서 ‘인류 건강에 대한 공헌’이라는 큰 뜻을 품고 2007년에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이라면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훌륭하고 능력 있는 많은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아산의학상을 통해서 배출된 유능한 분들은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공헌함으로써 아산의학상의 가치도 상승시켜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찬에 이어 간호사 등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아산병원 합창부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32명의 합창단원은 그리운 금강산, 내 나라 내 겨레, 아름다운 세상 등의 가곡과 가요를 들려줘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인사말과 축사, 수상소감, 그리고 관련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